다른복음 만드는 복음의 연금술사

(갈1:1~10)

6.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다른 복음 만드는 복음의 연금술사>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연금술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철이나 납 등의 비금속, 비금속이라 함은 아닐 비(非)자가 아니라 낮은 비(卑) 천한 비(卑)자, 비금속을 가열하거나 혼합해서 금이나 은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연금술사들입니다.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말은 만들어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연금술사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 왔지만 실제로 그들이 철과 납 같은 금속을 가지고 금을 만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연금술사들의 생각은 단순히 어떤 모험가적인 과감한 생각이 아니라 일종의 신앙이었습니다, 확신과 신념의 체계였고.
그래서 이들은 이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네 가지 기본 본질적인 원소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흙과 물, 공기와 불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나무도 되고 물도 되고 산도 되고, 철이나 납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 네 가지 요소가, 예를 들어 흙이 흙 되게 하는 정령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흙의 정령과 불의 정령, 공기나 물의 정령을 불러서 이 구성하는 비율을 변화시키면 철과 납도 황금으로 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갖가지 제련법을 가지고 황금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어떤 신앙체계, 흙에도 정령이 있고 물에도 정령이 있고, 이 정령을 불러냄으로써 이 원소들의 비율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황금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중세 때는 굉장히 많은 연금술사들이 이단으로 몰려서 처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런 일종의 신념체계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브라질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소설에서 보면, 이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을 자아를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봅니다, 자아수련의 방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연금술사들이 있는데, 복음에도 연금술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연금술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연금술사들은 철이나 납 같은 천한 금속을 가지고 순도 99%의 황금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이 복음의 연금술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자들로, 이것은 거꾸로 황금과 같은 진짜 복음을 철이나 납 같은 본질적으로는 비복음, 복음이 아닌 복음으로 만들어내는 복음의 연금술사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잠입해가지고 갈라디아교회 교인들이 받아들였던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에도 4원소가 있을까요?
복음에 4원소가 있습니다.
연금술사들의 생각 속에서 이 세상은 흙과 물, 불과 공기로 이루어졌다고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복음의 4원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 때에 나타나는 효과의 내용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네 가지 원소가 무엇입니까?

첫째 원소는 죄 사함의 요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더러움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제 네가 내 마음에 들고 나와 관계를 가질만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의롭다 함을 입은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정확히 따져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관계해도 괜찮을만한 존재가 되었다고 인정해주시는 게 칭의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관계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관계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돌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칭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연합의 요소입니다.
이 연합의 요소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연합의 요소가 있고 땅의 연합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늘의 연합의 요소라는 것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자격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하늘 연합의 요소입니다.
이 요소가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쁘게 되는 상태, 이게 바로 복음의 세 번째 요소에요.
땅의 연합은 뭐냐?
우리가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버리면 마음이 없이는 이 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없어진 내 마음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와서 내 몸을 움직여 가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땅의 연합이에요.
이렇게 4가지 원소로 십자가복음은 그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연금술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4가지 요소의 비율에 변화를 주거나 요소 중 어떤 것을 제거하거나 이물질을 섞으면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4가지 원소는 다른 어떤 요소로도 대체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대체해버리면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이들이 바로 복음의 연금술사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그리스도를 운운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서, 8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자기 자신이라도, 1차 여행 때 갈라디아교회를 세울 때 전했던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얘기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1차 전도여행 때 세웠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언제 어디서 썼느냐 하면, 에베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고린도전서를 썼고, 그 뒤에 에베소에서 급하게 고린도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가 급하게 또 돌아옵니다.
마음 아픈 방문이라고 이름 하는 이 방문 뒤에 에베소에서 직접 고린도교회로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교인들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만나게 되면 서로 너무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염려하면서 사도바울이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갑니다.
고린도교회가 그리스반도의 남쪽에 있었고 마케도니아 지방이라는 게 그리스 반도 위 북쪽에 있는데 그 북쪽 지방으로 먼저 갑니다.
거기에는 빌립보교회나 데살로니가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린도후서를 썼어요,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디도가 고린도교회로부터 갖고 온 편지를 보고 좋아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다만 몇몇 사람들이 아직도 거짓 사도들에게 현혹되어서 사도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마케도니아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갈라디아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에요, AD 56년경에.
그런데 갈라디아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읽어가면서 알게 되겠습니다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표방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수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다른 복음 때문에 생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이 서두에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과 칭의를 얻었어요.
칭의가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내가 관계를 맺어도 될 만한 존재가 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교회 교인들이 이 유대적 율법주의를 본질로 하고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얘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해주시면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을 속히 떠나버리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결국 7절에 '복음을 변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복음을 변하게 했다는 것은 복음을 뒤집어버렸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복음을 무효로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요?
연합의 요소가 누락되어버렸다는 얘깁니다.
연합의 요소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이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돼서 확인되어질 중요한 요소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비어진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연합함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비어있는 채로는 있을 수 없어요, 비어있는 채로 느끼는 게 공허함이고 우울함이고 무력함이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이 빈 채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찾게 되고 그것들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 채우려 하는 연합이 어떻게 일어나나 하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죄 사함과 칭의가 주어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죽고, 그것이 바로 칭의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이제는 나 말고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으로 마음의 빈 곳을 채우려고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죽었구나!' 그렇게 인정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나만을 향해서 그 마음의 빈 구석을 채우기 위하여 달려오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국면이 칭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칭의의 자리에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달려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렇게 갈라디아교회에 잠입한 복음의 연금술사들이 빚어낸 다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해나가면서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시대의 연금술사들이 빚어낸 다른 복음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일까요?
자, 다른 복음 제조법이 있습니다, 3단계에 걸쳐서 제조법이 일어납니다.
첫째 단계는, 일단 십자가복음을 인정합니다.
십자가복음을 인정하면서 십자가로부터의 죄 사함의 선언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죄 사함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함을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연결시켜버립니다.
벌써 여기서 칭의라고 하는 두 번째 복음의 원소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칭의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얘기를 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칭의요, 구원이라고 생각해버리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에요, 죄 사함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못 박아버립니다.

둘째 단계는, 비어있는 마음속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연합이라는 복음의 원소를 바꿔버리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보편적인 가치, 좋아할 만한 것, 가정의 번영, 건강, 사업의 번창, 나라와 민족의 번영, 이런 것들,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지는 보편적인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사람들 눈앞에서 화려하게 꽃 피우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마음의 빈 구석에 채워 넣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즐겨 말하는 것이 꿈, 비전, 희망, 포부, 건전한 야심, 등등으로 표현하면서 이 연합의 단계를 완전히 다른 성분으로 변화시켜버립니다.
십자가복음을 받아들이면 거의 운명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만족이란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만으로 마음을 채워서 기쁘지 않으면 기쁨이란 없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으로 평강을 얻을 수 없으면 평강이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근심스럽고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슬프고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한 분과 씨름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전부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셋째 단계가 뭐냐 하면, 두 번째 단계에서 이 연합의 단계를 다른 성분으로 변화시켰잖아요? '돈 많이 벌어 행복해라, 사업 잘돼서 행복해라, 건강해서 행복해라, 가정의 일들이 다 이 세상에서 형통해서 행복해라'라는 걸로 다 바꿔놓은 다음에, 그렇게 바꿔놓은 그 잘못된 꿈과 비전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번째의 땅에서의 연합 대신에 율법을 재생시킵니다.
앞에서의 칭의 단계에서 없어져버린 율법은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 없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복음의 네 번째 단계인 땅에서의 연합,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몸을 성전삼아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삶이 진행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율법이나 원칙이나 원리를 행동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마음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꿈꾸고 실현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얻을 수 있다고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봉사하고 충성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열심히 구제하라, 열심히 교회 참석하라, 그러면 우리 마음이 좋아해서 마음 안으로 들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변질시켜버린 겁니다.
복음의 연금술사들이에요, 복음의 연금술사.
'가난은 죄다, 우리도 잘살 수 있다,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몸에 병이 날 수가 있겠느냐? 병은 죄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사도바울이 육체에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가 족하다고 하셨어요.
병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복음의 네 원소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황금과 같은 복음을 철이나 납이나 구리 아연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복음의 연금술사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요, 강단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이들을 그대로 놔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완전히 헛되이 돼버리고 맙니다.
복음의 4원소가 뭐라고 했지요?
죄 사함과 칭의와 하늘에서의 연합과 땅에서의 연합입니다.
하늘에서의 연합,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만 만족해지는 것.
땅에서의 연합, 이 땅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와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땅의 연합.

이 네 가지 원소가 온전하게 다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은 그 복음을 전하는 매개자인 연금술사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으로 바뀐 것이고,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서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 운운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입에 올리면서 이 십자가복음의 네 가지 원소를 변형시키거나 다른 성분으로 대체시키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도바울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연금술사들, 이들을 가려낼 수 있는 영적 혜안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 혜안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순도 100%인 황금 같은 십자가복음을 복음 되게 하는 그 네 가지 원소를 변형시키고 대체함으로써 납과 철과 아연쪼가리 같은 것으로 만드는 복음의 연금술사를 언제쯤이면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부터 축출해낼 수 있을지, 주님! 그러한 혜안과 그러한 과단성 있는 신앙의 결단이 한국교회에 또 이 지구상의 교회에 가능하도록 은총을 베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